

#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와 무흘구곡\*

- 무흘구곡의 일부 위치 批正을 겸하여 -

정우락\*\*

## 【 차례 】

- I. 문제의 제기
- II.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
- III. 사인암·만월담·와룡암 비정
- IV. 무흘구곡의 문화적 특징
- V. 남은 문제들

## 【 국문초록 】

성주와 김천 지역이 걸쳐 있는 무흘구곡 가운데 사인암과 만월담은 오늘날까지 심각하게 왜곡된 채로 전해졌고, 와룡암도 한강 정구가 명명한 바로 그 자리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30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던 무흘구곡 연구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안내판 설치는 구곡문화를 왜곡하고 고착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본 논의는 이를 철저히 고증하여 그 위치를 새롭게 비정했다.

무흘구곡은 내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무흘구곡이 새로운 구곡문화의 모태가 되었던 점, 영남의 독서문화를 이끌었던 점, 곡과 경이 어울리면서 특이한 '曲內曲', '曲中景'의 문화적 확장을 보였던 점, 유불선이 화합하면서 경쟁하였던 점, 계회를 통한 구곡 문화의 계승을 보였던 점 등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은 한강 정구라는 대학자가 구심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성쇠가 나타나지 않는 바 아니나 지역민들이 自文化를 꾸준히 가꾸어 가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어

성주, 김천, 무휼구곡, 한강 정구, 사인암, 만월담, 와룡암, 曲內曲, 曲內景

## I. 문제의 제기

구곡문화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선비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朱熹(晦庵, 1130-1200)는 중국 복건성 무이산 계류를 중심으로 무이구곡을 경영하며 여기에 자신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투영하였다. 주자학이 우리나라로 전래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화도 들어오게 되고, 조선의 주자학자들도 자신이 강학하는 곳을 중심으로 구곡을 설정·경영하면서 주회처럼 생활하기를 염원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확인된 구곡만 하더라도 160여 곳이 넘게 존재한다. 조선 선비들의 구곡문화에 대한 열광은 이로써 충분히 확인된다.

구곡문화는 『武夷志』를 통해서 구체화 혹은 정착화 하는데 대체로 다섯 가지 방향성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주회를 숭모하는 입장에서 「武夷權歌」를 次韻하는 데 그치는 경우, 둘째, 주자시를 차운하면서 조선의 실경을 心意로 간직하는 경우, 셋째, 주자시를 차운하되 조선의 실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독자화 하는 경우, 넷째, 주자시를 화운하지 않고 연시조나 여타의 시운으로 독자적 구곡을

경영하는 경우, 다섯째, 주자시를 화운하지 않지만 주희 무이구곡의 意象을 빌려오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분류체계에 입각해 볼 때, 첫째는 李滉(退溪, 1501-1570)의 「閑居讀武夷志 次九曲權歌韻十首」, 둘째는 鄭述(寒岡, 1543-1620)의 「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十首」, 셋째는 金壽增(谷雲, 1624-1701)의 「谷雲九曲次晦翁武夷權歌韻」, 넷째는 李珥(栗谷, 1536-1584)의 「高山九曲歌」이나 鄭東璞(警軒, 1732-1792)의 「雙溪九曲詩」, 다섯째는 張福樞(四未軒, 1815-1900)의 「墨坊十詠」 등이 각각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밖에 李道復(厚山, 1862-1935)의 경우처럼 가사의 형태로 된 「鬪山九曲歌」를 짓기도 하고, 宋時烈(尤庵, 1607-1689)의 경우처럼 이이의 「고산구곡가」를 한역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 수씩 주희의 「무이도가」를 차운하기도 하였다. 또한 李象靖(大山, 1711-1781)의 「七曲詩」처럼 「무이도가」가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조선의 구곡시가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구곡을 자연 속에서 경영하는 방식도 기본적으로는 주희의 그것을 계승하되 여러 측면에서 형태를 달리한다. 주희는 무이산 계류 약 9.5km를 거슬러 오르며 「淳熙甲辰仲春, 精舍閑居, 戲作武夷權歌十首, 呈諸友遊, 相與一笑」, 이른바 「무이도가」를 짓는다. 이에 입각하여 조선의 선비들 역시 그들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류를 거슬러 오르면서 구곡을 설정 경영하고 시를 짓는다. 그러나 영주의 竹溪九曲이나 문경의 淸臺九曲처럼 상류에 1곡을, 하류에 9곡을 설정한 경우도 있으며, 문경의 雙龍九曲처럼 구곡을 두 줄기의 시내에 나누어 설정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형태적 변화 역시 주자학의 토착화 과정에서 나타난 매우 흥미로운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구곡문화 가운데 성주와 김천 지역을 한정해서 다루기로 한다. 이 지역의 구곡문화는 정구가 무흘로 들어가 주자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주희의 「무이도가」에 대한 차운시를 창작하면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후인은 정구의 心意에 따라 '무흘구곡'을 찾아 나서며 정구의 구곡시를 다시 차운하였고, 조선 말기에는 李源祚(凝窩, 1792-1872)가 布川 상류에 晚歸亭을 짓고 포천구곡을 경영하며 차운시를 짓는다. 이밖에도 鄭東璞(警軒, 1732-1792)이 주희의 「무이도가」 운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시운을 사용하며 雙溪寺를 중심으로 한 雙溪九曲을 탄생시킨다. 이러한 사정을 먼저 다루어 성주 및 김천 구곡문화의 규모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 논의의 첫째 목표이다.

본 논의의 둘째 목표는 무흘구곡 가운데 그동안 잘못 알려져 왔던 捨印巖, 滿月潭, 臥龍巖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증하고 새롭게 批正하는 것이다. 무흘구곡에 대한 연구는 30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진척 또한 없지 않았다. 1985년 金光淳이 문학적 측면에서 주목한 이래,<sup>3)</sup> 李殷昌<sup>4)</sup>과 崔杞秀<sup>5)</sup> 등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보고서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스토리텔링의 일환으로 일간신문에 연재되기도 하는 등<sup>6)</sup> 무흘구곡은 거듭 논의되어 왔다. 그러

3) 金光淳, 「寒岡의 生涯와 文學」, 『한국의 철학』 13, 경북대 퇴계연구소, 1985.

4) 李殷昌, 「韓國儒家 傳統園林의 研究 - 儒學者의 卜居와 九曲經營을 中心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4, 효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 1987.

5) 崔杞秀,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景觀 構造의 解釋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1989.

6) 영남일보에서는 「깨달음의 땅 金泉」이라는 제하에 '한강 정구와 무흘구곡 스토리 <1> 이상향을 꿈꾸며 다시 구도의 세계로 ... (2012년 10월 16일자)'에서 '시리즈를 마치며 <12끝> 전문가 인터뷰(2012년 12월 27일자)'까지 12회를 연재한 바 있다. 이 연재에서도 현재 잘못 지정된 구곡을 중심으로

나 이들은 일부 혹은 전부를 현재 잘못 지정된 무흘구곡으로 이해하고 글을 쓰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sup>7)</sup>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엉뚱한 자리에 안내판을 세움으로써 더욱 심각하게 왜곡되고 고착화되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본고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의의 셋째 목표는 무흘구곡 내에 어떤 문화가 누적적으로 존재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이다. 정구가 무흘에 들어가 무흘정사를 짓고 독서 강학하면서 무흘 문화를 구축한 이래, 이곳을 중심으로 특별한 동천문화가 형성되었다. 쌍계구곡과 포천구곡 등 구곡문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쌍계사·청암사·수도암을 중심으로 불교문화도 이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유교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화합하였다. 그리고 무흘구곡 안에는 晴川精舍·夙夜齋·墨坊書堂·可隱書堂·靑巖寺·武屹精舍 등을 중심으로 여러 景觀들이 새롭게 제시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펴 무흘구곡 내의 창조적 문화에 대한 실체를 점검한다.

무흘구곡은 동일한 공간 내에서 시간대를 달리하며 그 문화가 지속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했다. 지속됨이 당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변화를 거듭하였다 하겠는데, 이로써 문화는 미래와의 연계망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의는 결국 미래의 무흘 문화에 어

---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7) 이은창은 앞의 논문 83쪽에서 만월담을 현재의 자리로 오해하고 있다. “既往에는 自怡軒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현재 잘못 지정된 자리에 자이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기수는 앞의 논문 117-119쪽에서 파괴된 채로 존재하는 사인암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으나, 만월담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은창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자리로 오해하였으며, 와룡암도 현재 각자된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여 한강이 지정해 명명한 와룡암은 간과하고 있다. 초창기 연구에서는 일부 정확한 고증이 있으나 이후 안내판이 잘못 설치되면서 30년 가까이 무흘구곡과 그 문화는 심각하게 왜곡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편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구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힐링이 중요한 문화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과 기술의 너머에 있는 인간과 가치가 절실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무흘구곡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sup>8)</sup>의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있으므로 무흘에 대한 문화적 이해는 결국 미래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II.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

무흘구곡은 금오산과 수도산에 이르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산줄기를 관통하는 계곡이다. 총길이 35.7km로 현재 알려진 우리나라 구곡 가운데 단위 면적이 가장 넓다. 구곡의 구간은 제2곡인 한강대와 제3곡인 무학정 사이가 가장 길고, 제7곡 만월담과 제8곡 와룡암 사이가 가장 짧다. 김천 쪽으로 올라가면서 화강암과 화강암질 편마암이 주로 분포한 협곡이 발달해 있어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sup>9)</sup> 이 때문에 역대의 문사들은 이 무흘구곡을 들어 함천의 紅流洞보다 낫다고 하거나,<sup>10)</sup> 京山第一勝地<sup>11)</sup> 혹은 天開勝地<sup>12)</sup>라며

8) 성주군과 김천시의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 선정된 선도프로젝트로, '선조들의 삶이 투영된 문화·생태 경관보전'이라는 목적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9) 문화재청, 『2006 전통명승 동천구곡 조사보고서』(연구책임자 김덕현), 문화재청, 2007. 53쪽 참조.

10) 정구는 『遊伽椰山錄』에서 무흘의 계곡을 들어 “그 맑고 기이하며 그윽하고

극찬해 마지않았던 것이다. 이제 성주와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를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는 정구의 무흘 경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다. 정구는 62세(1604년) 되던 해에 避地意識을 갖고 讀書養性을 위하여 무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의 무흘 시대는 시작된다.<sup>13)</sup> 무흘에 대한 정구의 관심은 37세에 쓴 「遊伽倻山記」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의 무흘사랑은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싹터 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흘로 가는 길의 虎坪[범뜰]에는 외가의 선영이 있었고 그 아래 溪堂이 있어 이곳을 자주 방문하여 식사를 하거나 독서를 하였다.<sup>14)</sup> 만년에 본격적으로 무흘에 들어간 정구는 棲雲庵을 비롯해서 山泉庵과 自怡軒·飛雪橋 등을 만들고, 臥龍巖과 玩瀑亭 등 주위의 산천에 일정한 이름을 붙이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 간다.

일찍이 정구는 주희의 「무이도가」와는 다른 무흘을 배경으로

고요한 느낌은 며칠 전에 구경한 홍류동에 비할 정도가 아니었다(1579년 9월 20일조).”라고 적고 있고, 정위 역시 「遊伽倻山記」에서 “百川橋에 이르니 천석이 아름답고 산수가 맑아 도리어 홍류동보다 경치가 뛰어났다(1781년 4월 23일조).”라고 적고 있다. 이곳을 찾은 많은 선비들은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 11) 成涉, 「再遊武屹」(『僑窩文稿』外篇), “其清淑之氣, 絕特之觀, 殆京山第一勝地.”
- 12) 趙錫喆, 「遊伽倻山, 轉到曾淵」(『靜窩集』卷1), “萬丈層巖百尺潭, 天開勝地嶺之南.”
- 13) 이에 대해서는, 鄭羽洛, 「寒岡 鄭述의 武屹精舍 건립과 著述活動」, 『남명학연구』 28,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9. 참조.
- 14) 정구의 「유가야산기」 1579년 9월 19일조에는 그가 무흘구곡 내에 있는 호평의 齋閣에 가서 밥을 먹은 뒤에 軟石菴을 거쳐 배바위와 선바위 쪽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與李茂伯」(『한강집』 권4)에는 “저번에 산중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마침 날씨가 추워지고 계다가 글씨 쓰는 사람을 불러와 禮書를 교정하고 다듬느라 호평의 溪堂에 머물러 있는 지 한 달 남짓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주희의 「무이도가」에 대한 차운시를 짓는다. 「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十首」가 그것이다. 주희의 무이구곡과 비교해 보면 같은 요소도 많이 나타나지만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 이 다른 부분에 정구의心意가 실린 것이라 본다. 즉, 주희의 「무이도가」에 보이는 도가적 신선사상이 그의 차운시에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점, 주희의 「무이도가」가 배를 띄울 수 있는 무이산 계곡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정구의 차운시는 배를 띄울 수 없는 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 정구의 차운시에는 무이산의 지명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이 그것이다.<sup>15)</sup>

봉비암에서 용추에 이르는 구간을 하나의 구곡으로 인식한 것은 정구 당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정구가 百梅園 근처에 세우려 하였던 향현사의 이름이 ‘晴川’이라는 사실이다.<sup>16)</sup> 이 ‘청천’은 주희의 무이구곡 제1곡 “一曲溪邊上釣船，幔亭峰影蘸晴川”에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구

15) 鄭羽洛, 「寒岡 鄭述의 武屹 景영과 武屹九曲 正작과정」, 『한국학논집』 4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2. 참조.

16) 정관영의 「詠晴川四美竝序」와 鄭聖鱗의 「次韻序」 등에 의하면, 정구가 향현을 위한 청천정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축대를 쌓고 주춧돌까지 놓았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후 1729년(영조 4)에 청천서원이 대가면 사도실에 건립된 후 이곳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다가, 정관영이 1859년에 옛 주춧돌을 찾아내고 그 자리에 집을 세워 청천정사라 이름한 후 이듬해 「晴川四美」을 읊는다. 裴潤(四勿窩, 1774-1813)의 청천서원 「청액소」에도 관련 사실이 나타난다. (『請額疏』, 『四勿窩遺稿』 張32 참조) 그러나 정구의 아들인 鄭樟(晩悟, 1569-1614)이 쓴 「爲鄉人呈方伯文」에 의하면 몇 칸으로 된 晴川書齋를 대가천 가에 세운 것으로 되어 있으며, 李萬運(默軒, 1736-1820)이 쓴 정장의 「墓碣銘」에는 정구가 청천서재에서 문생들에게 강학을 하며 「晴川講錄」을 남긴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보아 봉비암 근처에 정구 당대부터 청천서재가 있었으며, 이것이 김우옹 사후 그에 대한 추모처로 사용되다가 자리를 옮겨 지금의 청천서원으로 발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봉비암을 제1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그의 제자 許穆(眉叟, 1595-1682)이 전서로 '봉비암'이라 쓰고 후손들이 그것을 제1곡 봉비암 바윗돌에 새겼던 사실 역시 정구 당대부터 봉비암을 구곡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둘째, 18세기에 들어 '정구의 무흘구곡'으로 강력하게 인식되면서 「무흘구곡도」 제작과 함께 다양한 차운시가 창작된다는 점이다. 무흘구곡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는 최초의 구체적 확인은 제4곡인 立巖 석각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석각이 崇禎紀元後 69년인 1716년 7월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玉流洞과 愁送臺 등의 글자와 함께 새겨진다. 이는 18세기 초에 들어 무흘구곡이 일련의 체계 속에서 공식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84년 무흘정사가 중건되고 무흘 실경을 중심으로 한 진경산수화 「무흘구곡도」가 그려지면서 무흘구곡은 서서히 정구의 것으로 굳어지게 되었으며,<sup>17)</sup> 20세기에 오게 되면 읍지인 『성산지』에서도 정구의 무흘구곡으로 등재되기에 이른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무흘구곡 각각의 명칭은 鄭東璞(警軒, 1732-1792) 시대에 이르러 전모가 나타난다. 구체적인 근거는 『警軒遺稿』<sup>18)</sup>와 정동박의 요청으로 그린 金尙眞(嶺齋, 1705-?)의 「武屹九曲圖」<sup>19)</sup>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제1곡 봉비암, 제2곡 한강

17) 鄭壻(進庵, 1799-1879)는 주희의 구곡시를 차운하면서 아예 「敬次先祖文穆公武屹九曲韻十絶」이라 하였다. 선조 정구의 「무흘구곡운」에 차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구의 무흘구곡'이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천명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郭鍾錫 역시 修道山 속에 있는 무흘구곡 용추(일명 白瀑)에 대하여, “此爲武屹第九曲, 而寒岡臺爲第一曲.”(『侁字集』卷7)이라 하고 있어 구곡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鄭東璞, 『警軒遺稿』卷2, 「무흘구곡운」. 여기에는 「무흘구곡도」도 함께 실려 있다.

19) 김상진, 「무흘구곡도」 참조. 정동박은 김상진에게 부탁해서 「武夷九曲圖」와

대, 제3곡 무학정(일명 船巖), 제4곡 입암, 제5곡 사인암, 제6곡 옥류동, 제7곡 만월담, 제8곡 와룡암, 제9곡 용추가 그것이다. 「무흘구곡도」에는 각 곡에 따른 문화경관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제1곡 봉비암의 檜淵書院, 제4곡 입암의 喚仙島와 巢鶴峯, 제6곡 옥류동의 甌峯·噴玉瀑·愁送臺, 제7곡 만월담의 飛雪橋와 觀瀾臺, 제8곡 와룡암의 場巖, 제9곡 용추의 修道山이 그것이다. 이 밖에 「무흘구곡도」에는 제7곡의 무흘정사 등 유념해야 할 건물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무흘구곡에 따른 문화경관을 생각하며 이곳을 찾은 선비들은 주희와 정구를 생각하며 차운시를 지었다. 정동박의 「武屹九曲韻」<sup>20)</sup>을 비롯해서 鄭堦(進庵, 1799-1879)의 「敬次先祖文穆公武屹九曲韻十絶」, 鄭觀永(五一軒, 1817-1895)의 「詠武屹九曲詩十首竝序」,<sup>21)</sup> 崔學吉(懼齋, 1862-1936)의 「敬次武屹九曲韻」<sup>22)</sup>이 대표적이다. 근년에는 臺灣大의 文幸福 교수 역시 무흘을 탐방하고 「讀武屹九曲圖帖抒感步玉」을 남긴다. 이들의 차운시는 한편으로 주희의 시운을 따라 밟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구의 심의에 따라 그 후인들이 설정하고 확정된 무흘구곡 실경을 보면서 노래했다. 여기서 우리는 무흘 실경

---

「武屹九曲圖」를 그린다. 「무이구곡도」에는 주희, 이황, 정구의 구곡시를 나란히 실어 주희의 도통이 이황을 거쳐 정구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였고, 「무흘구곡도」에는 자신이 지은 시 두 종류를 다른 종으로 써서 붙인다. 하나는 주희의 「무이도가」를 차운한 「武屹九曲韻」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달리 독자적인 시운을 사용한 「雙溪九曲詩」이다. 정동박은 옛날 쌍계사에서 지금의 증산면 장전리 쪽으로 들어가 養閒亭을 짓고 그 동을 月淵洞이라 명명한 후 「月淵洞圖」를 그려 臥遊의 자료로 삼았다.

20) 鄭東璞, 『警軒遺稿』 卷2.

21) 鄭觀永, 『五一謾筆』 卷1.

22) 崔學吉, 『懼齋集』 卷1.

을 통해 정구에 대한 추념을 일으켰던 후대의 선비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셋째, 정동박의 「쌍계구곡시」가 새롭게 창작되면서 무흘에 대한 독자화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조선의 구곡문화는 주희의 「무이도가」를 수용하면서 전개된다. 따라서 한시의 경우 주자의 시운을 따라 밟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한글로 구곡가를 창작하는가 하면, 시운 역시 주희의 것에 제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태를 달리한 작품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동박이 「무흘구곡시」와 「쌍계구곡시」라는 두 종류의 시를 창작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쌍계구곡시」는 주희의 「무이도가」와는 전혀 다른 시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박의 「쌍계구곡시」는 모두 10수이다. 그는 쌍계사 근처에 養閑亭을 짓고 선조 정구의 구곡시를 옆두에 두며 「쌍계구곡시」를 짓는다. 즉, 「棲雲庵」에서 시작하여, 「鳳飛巖」, 「寒岡臺」, 「船巖」, 「捨印巖」, 「喚仙島」, 「玉流洞」, 「滿月潭」, 「臥龍巖」, 「琿瀑亭」이 그것이다. 이들 시는 무흘구곡을 중심으로 하되, 그 주변에 있는 문화경관을 오히려 주목한다. 무학정의 '선암', 입암의 '환선도', 용추의 '완폭정'을 시제로 삼고 있는 것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경관을 보면서 작품을 창작하되, 주희의 시운에 구속되지 않았던 것이다. 제2곡의 경우를 예로 보면, 주희가 '峯', '容', '重' 등 상평성 '冬'운을 사용하였다면, 정동박은 '鷗', '洲', '流'라는 하평성 '尤'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박의 「쌍계구곡시」는 崔益重(負暄, 1717-1788)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해되었고, 따라서 그는 이에 대한 차운시를 남긴다. 「次

鄭戚光遠雙溪九曲韻十二首」<sup>23)</sup>가 그것이다. 이 시에서 ‘정척’이라 한 것은 정동박과 인척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며, ‘광원’은 輝國과 함께 정동박의 또 다른 자이다. 최익중은 정구의 제자 崔恒慶(竹軒, 1560-1638)의 6대손으로 정동박이 쌍계의 월연동에 복거하자 이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보이며 그의 「쌍계구곡시」를 차운하였다. 그는 주희의 시운을 따라 밟지는 않지만 「武夷九曲總韻」으로부터, 정동박의 구곡시를 차운하여 「봉비암」에서 「완폭정」까지 노래하였던 것이다.

넷째, 李源祚(凝窩, 1792-1871)가 포천구곡을 경영하면서 독자적인 구곡문화가 다시 탄생한다는 점이다. 이원조는 정구와 무흘구곡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정구의 종손 鄭大永(心源, 1788-1835)과 함께 무흘을 유람하고 「武屹遊呈鄭心源(大永)」이라는 장시를 창작하거나 武屹山房에 ‘見道齋’라는 편액을 써 걸기도 했다. 이처럼 이원조가 처음 관심을 둔 것은 수도산에 있는 무흘과 쌍계사였다. 이에 따라 수도산에 정사를 짓고 주희의 「무이도가」를 차운하면서, 주희를 원두로 해서 정구로 이어지는 구곡문화를 계승하고자 했다.<sup>24)</sup>

23) 12수라고 한 것은 정동박이 쌍계사에서 멀지 않는 곳(지금의 증산면 장전리 水簾瀑이 있는 곳)의 골짜기를 月淵洞이라 명명하고 養閒亭을 지어 관련시 두 수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익중은 「쌍계구곡시」 10수에 「養閒亭」과 「月淵洞」 2수를 더하여 12수라 하였다. 「양한정」은 7언율시이고 「월연동」은 5언율시이다. 『경헌유고』의 원운 詩題는 최익중의 차운시제와 조금 다르다. 정동박은 「月淵洞」과 「題月淵洞圖」라고 하였는데, 이를 최익중이 각각 「양한정」과 「월연동」이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연정」세주에는 ‘가야산 북쪽 산록에 竹頂村이 있고 그 앞에 수림폭이 있다. 그 위쪽에 정사를 짓고 편액을 養閒이라 하고 그 洞을 月淵이라 명명하였다. (『警軒遺稿』 卷2)’라 적고 있다.

24) 이원조는 「題武夷圖誌後」(『凝窩集』 卷9)에서 “余嘗築亭于脩道山中, 妄有慕古之志, 模擬九曲而和其詩.”라 하였다.

이후 이원조는 처음의 뜻을 고쳐 쌍계에서 지금의 성주군 가천면 화죽천 상류에 晚歸亭을 짓고 포천구곡을 설정 園林을 경영한다. 그는 「布川山水記」에서 “마침내 쌍계를 버리고 포천에 들어가서 한 걸같이 머리를 숙이고 걸음을 물려, 감히 명예를 다투고 이익을 노리는 계책을 꾸미지 않았다.”<sup>25)</sup>라고 하면서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다. 이에 대하여 都漢基(1836-1920)는 『邑誌雜記』에서 “근년에 한개[大浦]의 判書 이원조가 그 위에 만귀정을 지었으니 기이한 바위와 달려가는 폭포수는 무흘 다음이다. 무흘을 모방한 「布川九曲圖」가 있고 이 정자에 琴書와 杖屨를 간직하였다.”<sup>26)</sup>라고 적기도 했다.

이원조가 경영한 포천구곡의 구체적인 이름은 제1곡 法林橋, 제2곡 槽淵, 제3곡 九老洞, 제4곡 布川, 제5곡 堂瀑, 제6곡 沙淵, 제7곡 石塔洞, 제8곡 盤旋臺, 제9곡 洪開洞이다. 「포천산수기」에는 이에 대한 명칭과 함께 특징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어 그는 「布川九曲次武夷權歌十首」를 짓는다. 이것은 정구가 ‘무흘’을 밝히지 않고 주희의 시를 ‘仰和’하는 데서 그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18세기 이후 정동박 등이 지역의 실경에 의거하여 ‘무흘’을 분명히 밝히며 구곡시를 차운하는 방식을 계승한 것이다.

다섯째, 성주 및 김천의 구곡문화는 구곡과 주위의 경관이 맞물리면서 변형된 형태의 구곡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구곡문화는 구곡 계류에 따라 곡을 설정하고 물을 거슬러 오르며 이에 따른 차

25) 李源祚, 「布川山水記」(『凝窩集』 卷15), “遂捨雙溪而入布川, 每低一頭退一步, 不敢爲爭名射利之計.”

26) 都漢基, 「伽倻山」(『邑誌雜記』 張15), “近年, 大浦李判書源祚, 作晚歸亭, 於其上奇巖走瀑, 爲武屹之亞, 傲武屹, 有布川九曲圖, 藏琴書杖屨於此亭.”

운시를 짓는 것이 기본적인 향유 방식이다. 이와는 달리 자신이 은거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특별히 아름다운 경관을 지정한 후 그 경관의 특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연을 향유하기도 한다. 8경이나 10경 등 대부분의 集景詩는 이 과정에서 창작된 것이다. 이 지역의 구곡문화에는 이 둘이 서로 섞이는 혼효현상이 나타난다.<sup>27)</sup> 즉 주희의 「무이도가」를 차운하지만 구곡시와 전혀 상관없이 주위의 경관을 노래한 경우도 있고, 주위의 경관을 노래한 집경시인 듯하지만 주희의 구곡시에서 보이는 세계지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주희의 「무이도가」를 차운하지만 구곡시와는 전혀 달리 주위의 승경을 노래한 것은 성섭의 경우에서 나타난다. 성섭은 무흘정사에 들러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하기 위하여 주자의 「무이도가」운을 사용한다. 「次朱夫子武夷九曲韻以記其勝」 10수가 그것이다. 구체적인 작품은 「武屹高山」, 「武屹溪水」, 「經閣之在山中」, 「藏書之無人誦讀」, 「臥龍巖」, 「修道山」, 「讀書人之不到」, 「時有學道之來此」, 「自歎吾之未學而寓年暮」, 「寓感古之懷」다.<sup>28)</sup> 이들 시는 주희의 「무이도가」 10수를 차운하지만, 계류를 따라 구곡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 무흘정사 주위의 景觀에 대하여 주희의 「무이도가」운을 단순히 빌려 노래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이들 작품은 구곡시를 차운하고 있어 ‘曲’인 듯하지만 실제로는 무흘의 승경을 노래한 ‘景’이라는 것이다.

주위의 경관을 노래한 집경시인 듯하지만 주희의 구곡시와 같은 세계지향을 보인 것은 張福樞(四未軒, 1815-1900)의 경우에 나

27) 이 부분은 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28) 이 시는 성섭의 「遊武屹山」(『僑窩文稿』外編) 속에 있는 것으로 제목은 「次朱夫子武夷九曲韻以記其勝」이다.

타난다. 그는 78세 되던 해, 무흘구곡의 제3곡인 무학정과 제4곡인 입암 사이에 있는 墨坊에 은거한다. 여기서 그는 菑焉亭을 짓고 「墨坊十詠」을 노래하는데 「覓眞灘」, 「垂藤澗」, 「雙流湫」, 「洗心淵」, 「盤陀石」, 「玄雲臺」, 「筆巖」, 「硯磬」, 「鼓瀑」, 「平川」이 그것이다. 이 작품은 주희의 「무이도가」를 차운하지 않지만, 계류를 따라 거슬러 오르며 설정되어 있고 意象도 구곡시와 유사하다. 제10경 「平川」에서 ‘험난한 곳을 모두 지난 물길이 갑자기 평평해지니, 들쭉날쭉한 산들의 기슭에서 시야가 탁 열리네.’<sup>29)</sup>라 한 것에서 그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주희가 「무이도가」 제9곡에서 ‘아홉째 굽이가 다하려 할 때 눈앞이 확 트이니, 뿡과 마에 비와 이슬 내리는 平川이 보이네’<sup>30)</sup>라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복추의 「묵방십영」은 묵방 자언정 주위의 ‘경’을 노래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주희나 정구의 구곡시를 계승한 ‘곡’을 읊었던 것이다.

성주 및 김천의 구곡문화는 대가친 계류를 따라 무흘구곡 안으로 생성되고 변화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정구는 주희의 「무이도가」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 무흘을 경영하며 주희의 구곡시에 차운한다. 그러나 그 스스로 ‘무흘구곡’을 표방하지는 않았다. 정구 스스로가 구곡을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구곡시는 주희의 그것과 서로 다른 것이었고, 따라서 후인들은 정구의 心意를 찾아 구곡을 설정하며 구곡문화를 정착시켜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희의 시운과는 전혀 다른 정동박의 「쌍계구곡시」가 탄생하게 되고, 이원조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 지역의 구곡문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29) 張福樞, 「墨坊十詠」(『四末軒集』卷1), “歷盡艱危忽得平, 亂峯低處眼開明.”

30) 朱熹, 「淳熙甲辰仲春, 精舍閑居, 戲作武夷權歌十首, 呈諸友遊, 相與一笑 九曲詩」(『朱子大典』卷9), “九曲將窮眼豁然, 桑麻雨露見平川.”

다. '포천'을 표방하며 독자적인 구곡문화를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성섭과 장복추의 경우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흘구곡과 주위의 경관이 맞물리면서 변형된 형태의 문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 Ⅲ. 사인암 · 만월담 · 와룡암 비정

무흘구곡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조경학적 측면, 미술사학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 거듭 논의되어 왔으나 사인암과 만월담, 그리고 와룡암은 예외 없이 그 위치에 대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학술적 접근이 이리할진대 대중적 접근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럿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근대화 과정에서의 문화적 단절일 것이다. 이러한 단절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안내판 설치로 이어지고,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대중은 물론이고 학자에 이르기까지 부정확한 전철을 그대로 따라 밟으며 왜곡된 무흘 문화를 고착시켜 나갔다. 「무흘구곡도」를 실경에 맞추어 보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정밀한 답사를 동반하지 않았으므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무흘구곡 가운데 사인암과 만월담, 그리고 와룡암의 위치를 批正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관련 문헌의 정확한 이해이며, 다른 하나는 「무흘구곡도」와 무흘 실경이 일치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특히 「무흘구곡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석각을 찾아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치를 설정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변화되기 전의



자연을 촬영한 사진을 찾거나,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변화된 상황을 듣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서 세 곡의 정확한 위치를 비정해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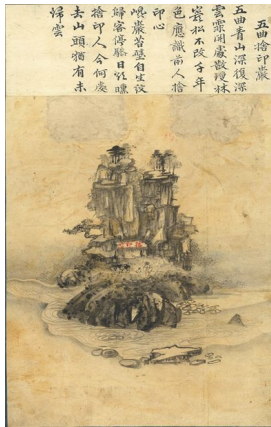
먼저, 제5곡 사인암의 경우이다. 사인암은 ‘畝人巖’, ‘捨身巖’, ‘捨印巖’으로 불리는데 각각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진다. 畝人巖은 고려 시대에 畝人 벼슬을 한 어떤 사람이 이곳의 아름다운 수석을 사랑하여 이 바위 아래에 자리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捨身巖은 이곳에 온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잊어 인간 세상의 몸을 놓아 버리고 이곳과의 인연을 영원히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 한다.<sup>31)</sup> 捨印巖은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官印을 버리고 이곳에 살기를 원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sup>32)</sup> 첫째와 둘째는 한강 당대부터 있어 왔던 설이고, 셋째는 18세기 후반부터 쓰이던 명칭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주군에서 안내하는 대로 사인암이 성주군 금수면 영천리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 오래도록 살아온 주민 김상록 씨(76세)와 박쌍규 씨(75세) 등의 증언과 최근에 입수한 사진 등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사인암으로 알려진 곳의 반대편인 도로 측 절개지가 사인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 산1-6번지에 해당하며, 1990년대 초 성주댐 건설로 인한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파괴

31) 이상의 둘은 정구의 『유가야산록』에 근거한다. 정구는 이 속설을 전하며, “이런 설은 다 시골 마을의 속된 말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였다.

32) 이것은 정동박의 『무흘구곡운』 및 『무흘구곡도』에도 捨印巖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돌에 새겼다. 아마도 정구가 畝人巖과 捨身巖에 대하여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유가야산록』 1579년 9월 21일조).’라고 한 것에 연유한 것이 아닌가 한다.

된 지점이다.<sup>33)</sup> 절개지 위에는 파괴되기 전부터 있었던 소나무 몇 그루가 아직도 남아 있어 당시의 상황을 말해 준다. 더욱이 파괴되기 전의 사인암을 촬영한 사진도 남아 있어 이를 증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사인암도」



〈그림 2〉 현재 잘못 지정된 사인암



〈그림 3〉 사인암 실경



〈그림 4〉 파괴되기 전의 사인암

33) 정우락, 『한강 정구의 무흘 경영과 무흘구곡 정착과정』, 『한국학논집』 4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2. 112쪽. 각주 63) 참조.



〈그림 5〉 사인암 각자



〈그림 6〉 사인암 위성사진

〈그림1〉은 김상진이 그린 「사인암도」이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捨印巖’이라는 붉은 글씨가 있고, 그 아래로 길이 나 있는데 어떤 선비가 조랑말에서 내려 경관을 구경하고 있고, 동자는 조랑말 쪽을 바라보며 그 말을 지키고 있다. 〈그림2〉는 현재 잘못 지정된 사인암이다. 이 사진을 보면 물의 흐름이 〈그림1〉과 전혀 다르고 특히 아랫부분의 母巖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것이 예전 선비들이 감상하며 노래했던 사인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오히려 반대편의 증산 쪽에 도로확장 공사로 생긴 절개지가 있는데, 절개지 앞을 흐르는 시내의 건너편에서 보면 〈그림3〉처럼 아랫부분의 모양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 사진의 모양 좌우에 보이는 축대는 최근에 도로를 새로 내면서 쌓은 것이다.

그렇다면 파괴되기 전의 사인암 실경은 어떤 모습일까? 〈그림 4〉가 그것이다. 이 사진은 1982년에 촬영한 것으로 모양이 확실하게 보이고, 절개지가 생기기 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로공사를 위해 새로 쌓은 축대도 보이지 않는다. 물의 흐름도 〈그림1〉과 같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에 서있는 소나무도 그림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사인암도」(〈그림1〉)에서는 사인암의 배경을 이루는 뒷산이 생략되어 있고, 암석도 실경에 비해 조금 좁

은 듯하다. 그러나 ‘捨印巖’ 각자를 찍은 사진을 최근 입수(〈그림 5〉)하고 주민 김상록 씨로부터 석각의 위치를 확인한 바, 〈그림 3〉이 바로 사인암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은 현재 잘못 지정된 사인암과 새로 비정한 사인암을 위성사진으로 보인 것이다.

다음은 만월담의 경우이다. 『한강연보』에 의하면 “무흘은 성주의 서쪽 修道山 속에 있는데, 泉石이 정갈하고 人家가 멀리 떨어져 있다. 선생이 이곳에 초가삼간을 세워 서책을 보관하고 편히 쉬는 장소로 삼았으나 그 깊은 뜻은 사람들을 피해 있고 싶어서였다. 편액을 棲雲庵이라 하였다. 서운암 밑에는 飛雪橋와 滿月潭이 있고, 만월담 위쪽에 自怡軒이 있는데 나무를 엮어 만들었다. 서운암 동쪽에는 山泉庵이 있다. 바위틈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옥을 굴리는 것처럼 맑다. 주자가 지은 ‘깊은 밤 베갯머리 산골 샘 소리(夜枕山泉響)’의 뜻을 취해 이름하였다.”<sup>34)</sup>라고 기록해 두고 있다.

만월담은 정구가 처음 지었던 서운암의 원위치를 정확하게 비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서운암 밑에 비설교와 만월담이 있고, 만월담 위쪽에 자이현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설교’와 ‘관란현’이라는 석각을 찾는 것이 만월담을 찾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나는 2013년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간 이 지역을 정밀답

34) 『寒岡年譜』卷1, 62歲條, “武屹在州西修道山中, 泉石清潔, 人煙通隔, 先生立茅屋三間, 爲藏書燕息之所, 而其微意, 則蓋欲以避地也. 扁曰棲雲庵, 庵下有飛雪橋·滿月潭, 潭上有自怡軒, 構木爲之, 庵之東有山泉庵, 有泉瀉出巖罅, 聲如戛玉, 取朱子野枕山泉響之意, 以名焉.”

사 했고, 2월 28일 비설교 석각을, 3월 1일 관란대 석각을 찾을 수 있었다. 현재 잘못 지정된 만월담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위쪽에 있었다. 이로써 만월담뿐만 아니라 서운암을 비롯해서 만월담 위쪽에 있었던 자이헌, 서운암 동쪽에 있었던 산천암의 자리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제 관련 자료를 제시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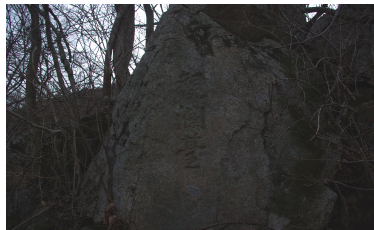
〈그림 7〉 「만월담도」



〈그림 8〉 현재 잘못 지정된 만월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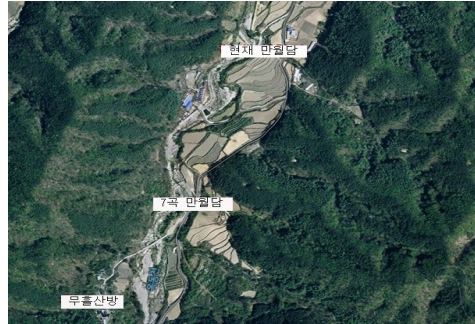
〈그림 9〉 만월담 실경



〈그림 10〉 ‘관란대’ 각자



〈그림11〉 ‘관란대’ 탁본



〈그림 12〉 만월담 위성사진

〈그림7〉은 김상진이 그린 「만월담도」이다. 여기서 보듯이 만월담 위에는 관란대가 있고, 나무로 비설교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비설교 위쪽에 서운암 옛터가 있다.<sup>35)</sup> 관란대에는 네 명의 선비가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선비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다른 선비들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또한 관란대 위에는 고사목이 있고 그 아래쪽에 커다란 소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 〈그림8〉은 현재 잘못 지정된 만월담이다. 이곳이 만월담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가 둘이 있다. 소나무가 있는 바위 뒤에 산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잘못 지정된 만월담에서 개울을 따라 수백 보를 올라가면

35) 고사목 가운데 가로로 표시된 축대가 바로 정구가 지었던 서운암 옛터이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이는 와가가 새로 지은 서운암이다.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무흘구곡도」에서는 「서운암도」를 가장 앞으로 보냈고 정동박의 「무흘구곡운」과 「쌍계구곡시」 서시를 여기에 배당시켰다.

언뜻 형태가 나타나는데 바로 「무흘구곡도」에 보이는 만월담(〈그림 9〉)이다. 그 위쪽에 觀瀾臺라는 석각이 〈그림10〉처럼 있고, 조금 위쪽 개울의 폭이 좁아지는 곳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오른쪽에 飛雪橋라는 각자가 보인다. 이로써 모든 것이 〈그림7〉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구가 달밤에 그의 제자들과 서운암에서 만월담 쪽으로 내려와 달을 구경하며, ‘천 년을 전해 온 군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사정도 이해하게 된다. 이천봉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吳長(思湖, ?-1616)은 ‘秋月照寒水’라는 주희의 「感興詩」를 외웠다고 한다.<sup>36)</sup>

마지막으로 와룡암의 경우이다. 李埴(心遠堂, 1572-1637)은 『한강선언행록』에서, 무흘정사에서 “시내를 따라 1리 정도 올라가면 암석이 하나 있는데, 물속에 가로로 길게 뻗은 모습이 마치 누워 있는 용 같았기에 臥龍巖이라 명명하였으며, 또 그 위 수 리쯤 되는 곳에 기이하게 생긴 바위가 깎아지른 듯 서 있고 반석이 평평하게 깔려 있어 場巖이라 이름 하였다.”<sup>37)</sup>라고 증언하고 있다. 즉 무흘정사에서 1리쯤 거슬러 올라가면 와룡암과 장암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무흘정사 위에 와룡암이 있고, 그 위에 장암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와룡암의 경우는 좀 특별하다. 현재 와룡암 석각이 있는데, 글씨를 여타의 경우와 달리 초서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다. 그런데 와룡암을 새겨둔 곳이 정구가 명명하고 이육이 전했던 그 와

36) 이러한 사정은 정우락, 「한강 정구의 무흘정사 건립과 저술활동」(『남명학연구』 28,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9), 285-290쪽에 자세하다.

37) 『寒岡言行錄』 卷3, “循溪而上一里許, 有巖石, 橫亘水中, 狀如臥龍, 命曰臥龍巖, 又其上數里許, 有奇巖削立, 盤石平鋪, 名曰場巖.”

룡암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느 곳이 정확한 와룡암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도 만월담 위에 있었던 무흘정사의 고증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거기서 1리쯤 거슬러 올라가면, 문헌에서 전하는 대로 물속에 가로로 길게 뻗은 모습이 마치 누워 있는 용과 같은 바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바위의 등에는 물에 많이 깎여 나가기는 하였지만 지금도 '峇'자를 확인할 수 있다. 와룡암 비정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 「와룡암도」



〈그림 14〉 '와룡암' 각자



〈그림 15〉 와룡암 실경



〈그림16〉 '암자' 각자





〈그림 17〉 '장암' 각자(원 안)



〈그림 19〉 와룡암 위성사진

〈그림13〉은 김상진이 그린 「와룡암도」이다. 이 그림에는 '臥龍巖'과 '場巖'을 붉은 글씨로 표시해 두었다. 와룡암은 장암 아래에 있고 또한 시내 건너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臥龍巖이라는 초서의 각자는 장암 위에 있다. 아마도 실제 와룡암에 새긴 처음의 글자가 〈그림16〉처럼 물살에 심하게 마모되자 이것을 막기 위하여 이곳에 다시 새긴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와룡암 각자는 하나의 '臥龍巖區'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그림17〉처럼 거의 마모되어 가는 장암이라는 석각이 그 아래에 있고, 맞은편 아래쪽에 누운 용의 모습으로 실제 와룡암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裴尙龍(藤庵, 1574-1655)은 『한강선생언행록』에서, “드디어 와룡암이라 이름하고, 선생은 마침내 『臥龍誌』를 지었는데, 반년 만에 책이 완성되었다. 선생은 그 서문과 발문에 가슴에 품은 생각을 다 토로하였다.”<sup>38)</sup>라고 기술하고 있다. 정구가 쓴 이 『와룡지』가

38) 裴尙龍, 「寒岡先生言行錄」(『藤庵集』卷4), “遂名臥龍巖, 因纂臥龍誌, 半歲而書

현재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흘의 산천과 고사, 그리고 다양한 시를 수집해서 쓴 인문지리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 정구는 무흘정사와 와룡암 일대를 중심으로 그의 주자학적 세계관과 산수 경영의 철학을 모두 토로하였던 바, 배상룡이 전한 ‘가슴 속에 품은 생각’은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무흘구곡 가운데 사인암과 만월담은 오늘날까지 심각하게 왜곡된 채로 전해졌고, 와룡암도 정구가 명명한 바로 그 자리가 아니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자료는 『한강집』에 전하는 관련 언급들과 18세기에 그린 김상진의 「무흘구곡도」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무흘의 실경을 찾고 또한 무흘구곡 속에 나타나는 석각을 찾으면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이곳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민들의 기억 역시 소중하다. 특히 관란대 석각의 발굴은 장소 비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흘정사를 비롯한 다양한 건물들이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무흘구곡에 대한 연구는 새롭게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IV. 무흘구곡의 문화적 특징

무흘구곡은 현재 전하는 구곡 가운데 길이가 가장 길고 단위 면적 역시 가장 넓다. 이것은 무흘구곡이 여타의 구곡에 비해 문화적 역량을 확실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구라고 하

---

成, 序文跋語, 據盡底蘊.”

는 걸출한 유학자와 연계되면서 이는 더욱 증폭되었다. 두루 알다시피 정구는 영남학파의 양대산맥인 李滉(退溪, 1501-1570)과 曹植(南冥, 1501-1572)을 스승으로 삼으면서도 이들의 학문을 독자적으로 계승하여 실용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학문을 구성한다. 그가 만년에 무흘로 찾아들어 독서양성하면서 무흘은 주자학으로 재무장하게 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정구를 추모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무흘구곡이 지닌 문화적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관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 무흘구곡 문화는 설정과 경영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선비들을 중심으로 한 합작품이라는 점이다. 무흘 문화는 물론 정구에 게서 시작한다. 그가 尊朱의 자세를 지녔지만 주희의 「무이구곡」과는 전혀 다른 작품을 창작하였으므로, 후인들은 정구의 心意를 찾아 나섰고 다양한 작품을 적층적으로 남길 수 있었다. 정구가 봉비암을 제1곡으로 보았던 것은 「무이도가」 제1곡 시에 보이는 ‘晴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향현사를 건립하고자 했던 것에서 확인되고, 이어 許穆(眉叟, 1595-1682)이 전서로 ‘봉비암’을 쓰면서 구체화된다. 시대가 내려오면서 무흘문화는 성쇠를 거듭하였으나 정구가 구심체가 되어 그 문화는 한말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흘구곡이 지역 선비들의 합작품이지만 이 속에서 독자성이 발휘되기도 했다. 모든 구곡이 무흘구곡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18세기 후반에 정동박이 무흘구곡과 거의 같은 쌍계구곡을 경영하며 주자의 시운과 전혀 다른 구곡시를 짓는다. 이어 한말에는 李源祚(凝窩, 1792-1871)가 가천면 화죽리 포천을 중심으로 구곡을 경영하면서 독자화한다. 성주지역의 구곡문화가 이처럼 무흘

구곡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이 하늘이 연 '京山第一勝地'로 인정되면서, 선비라면 누구나 이곳을 중심으로 주자학적 세계관을 추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정구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존모의 대상이 되었다.

둘째, 무흘정사 서운암이 산중도서관의 역할을 하면서 선비들의 독서문화를 이끌었다는 점이다.<sup>39)</sup>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야산을 유람하면서 무흘정사 장서각인 서운암에 들러 정구의 유품과 책을 보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 盧尙樞(西山窩, 1746-1829)의 일기에 의하면, 정조가 嶺外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문헌을 찾자, 이에 무흘정사에 보관되어 있던 책의 목록을 만들어 올렸다고 한다. '여기에는 정구가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책과 蘆谷精舍 화재 후 남은 정구의 저술 및 그의 선조들의 문집, 중국에서 수입하여 조선에서 간행한 책, 權近(陽村, 1352-1409)과 金守溫(乖崖, 1409-1481) 등 조선전기 인물들의 문집 등 수천 책이 장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허목은 "德裕山으로부터 鄭氏藏書가 있는 修道山 武屹을 거쳐 八萬大藏經이 있는 신라의 고찰 伽倻山 海印寺에 이르렀다."<sup>40)</sup> 라고 하였고, 이만부도 "수도산 무흘을 거쳐 정씨장서를 보고 쌍계와 입암을 방문하였다."<sup>41)</sup> 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씨장서'는 다름 아닌 정구와 그 후손들이 보관해 두고 있었던 무흘

39)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은 정우락, 「산중도서관 '무흘정사 장서각'의 장서 성격과 의미」, 『영남학』 2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1에 자세하다.

40) 許穆, 『伽倻山記』(『眉叟記言』卷28), "自德裕, 修道武屹, 有鄭氏藏書, 至伽倻海印新羅古寺, 有八萬大藏經."

41) 李萬敷, 『北歸記』(『息山別集』卷3), "踰修道武屹, 觀鄭氏藏書, 轉訪雙溪·立巖."

장서를 말한다. 이처럼 수다한 선비들이 이곳에 들러 讀書遊息하였다. 특히 成涉(僑窩, 1718-1788)은 『武屹藏書記』를 지어 “장서실 안으로 들어가면 페르시아 보물가게에 진귀하고 기이한 보물들이 가득 쌓여 있는 듯하여 눈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sup>42)</sup>라 하고 있다. 처음 보는 책들이 즐비하였기 때문에 그 경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무흘정사 서운암을 통한 무흘문화의 중요한 부면, 즉 선비들의 독서문화를 읽어내게 된다.

셋째, 무흘구곡 문화는 ‘曲 속의 曲(曲內曲)’과 ‘曲 속의 景(曲中景)’이라는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線’을 중심으로 한 ‘곡’의 문화와 ‘點’을 중심으로 한 ‘경’의 문화가 맞물리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곡내곡’은 무흘구곡 속에 다시 구곡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1716년 지역의 선비들이 정구의 심의를 찾아 성주군 수륜면 봉비암에서 시작하여 김천시 증산면 용추에 이르는 35.7km의 계류를 따라 무흘구곡을 설정하고, 18세기 후반에는 정동박에 의해 무흘구곡과 거의 같은 쌍계구곡이 설정된다. 19세기 중반에 들어 이원조가 무흘구곡의 제2곡 한강대와 제3곡 무학정 사이에서 화죽천을 거슬러 오르며 포천구곡을 경영하면서 구곡문화는 다시 새로워진다. 모두 무흘구곡 속의 구곡 형태로 나타난다.

‘곡중경’은 무흘 계류를 따라 구곡이 유지되는 가운데 어떤 곡에 서는 특별히 경이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제1곡 봉비암 앞에서는 정관영이 晴川精舍를 중심으로 『晴川四美』를 지정했다. 『鳳巖水月』, 『蔓旨雲烟』, 『梳山朝旭』, 『椰山夕照』가 그것이다. 제2곡 한강대 위에서는 鄭來錫(顧軒, 1808-1893)이 『夙夜齋十景』을 설정했다. 『鷲嶺

42) 成涉, 『武屹藏書記』(『僑窩文稿』外篇), “入其中者, 如斯波寶肆, 盛畜珍怪, 爛然耀目.”

朝嵐, 「椰山夕照」, 「遠村烟光」, 「寒溪月色」, 「梳潭漁火」, 「岡臺釣翁」, 「長橋行人」, 「近郊農歌」, 「鳳巖花開」, 「平原雪飛」가 그것이다. 이밖에 도 呂孝思(月潭, 1612-1671)는 제5곡 사인암을 중심으로 「隱鶴臺晴嵐」, 「鳳飛巖水石」, 「洗心灘活水」, 「玉流亭清波」, 「玩月亭月夕」, 「咏歸亭春景」, 「喚仙島歸雲」, 「隱跡臺宿霧」 등의 「可隱洞天八吟」을, 崔麟(梅窩, 1597-1644)은 제7곡 만월담을 중심으로 「棲雲庵」, 「飛雪橋」, 「滿月潭」, 「自怡軒」, 「石泉庵」, 「臥龍巖」, 「立巖」, 「翫瀑亭」 등의 「武屹精舍八詠」을 지어 구곡 속의 아름다운 승경을 다시 노래했다.<sup>43)</sup> 무흘구곡의 문화적 확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넷째, 무흘구곡 안에는 유불선 문화가 협동하면서 경쟁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무흘구곡은 주자주의의 성리학적 세계관과 맞물려 있다는 측면에서, 이 속에는 다양한 유교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쌍계사와 청암사, 그리고 수도암이 있어 불교문화 역시 발달하였다. 또한 무흘은 입암을 洞門으로 하는 하나의 福地洞天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염병이 돌거나 병화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들었다. 정관영이 전염병을 피해 鄭老永(1811-1857) 등과 함께 무흘로 들어오거나,<sup>44)</sup> 張顯光(旅軒, 1554-1637)이 임진왜란을 피해 이곳

43) 이밖에 승려 大山碧庵이 설정한 「靑庵寺八景」, 즉 「甑峰明月」, 「雙溪玉流」, 「武屹清風」, 「靈坵洗塵」, 「秋嶺落照」, 「龍潭瀑布」, 「修道間鍾」, 「仙臺歸雲」과 성섭이 설정한 「武屹精舍十景」, 즉 「武屹高山」, 「武屹溪水」, 「經閣之在山中」, 「藏書之無人誦讀」, 「臥龍巖」, 「修道山」, 「讀書人之不到」, 「時有學道之來此」, 「自歎吾之未學而寓年暮」, 「寓感古之懷」, 장복추가 설정한 「墨坊十景」, 즉 「覓眞灘」, 「垂藤澗」, 「雙流湫」, 「洗心淵」, 「盤陀石」, 「玄雲臺」, 「筆巖」, 「硯磬」, 「鼓瀑」, 「平川」이 더 있다. 이렇게 보면 무흘구곡 내의 경은 모두 58경이 된다.

44) 鄭觀永, 「詠武屹九曲詩十首竝序」(『五一謾筆』卷1), “余以童年, 兼避邇疹, 隨仲兄及從兄, 入武屹書堂, 以做數月之工.”

으로 들어온 적이 있는 것도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정구가 청암사에 머물며 무흘정사를 짓고, 산천암이 허물어질 위기에 있자 印峯이라는 승려가 승도들을 이끌고 와서 보수할 때도 승려들의 도움이 있었다. 무흘정사 자체를 승려들이 오랫동안 관리해 왔던 점에서도 유불의 상생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청암사의 개울을 廬山의 虎溪로 표방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는 중국 여산의 호계에서 그 이름을 취한 것인 바, 유불선 삼교의 화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45)</sup>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 무흘정사 서운암을 오랫동안 승려들이 관리하면서 승려들은 마침내 서운암을 쌍계사의 부속 암자라 주장하게 되었고, 따라서 유불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도한기가 『읍지잡기』에서 “몇 해 전에 서원을 훼손할 때에 이 齋閣도 헐리게 되었다. 또한 妖僧 栢悅이라는 자가 사찰의 폐폐에 대하여 京司에 거짓 하소연하였기 때문이니 크게 탄식할 만하다.”<sup>46)</sup>라고 기술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계회를 통해 무흘 문화를 계승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정구가 세상을 뜬 후 武屹山長이 되어 무흘 문화를 지키려고

45) 虎溪三笑라는 고사에서 확인된다. 陳聖俞의 「廬山記」에 의하면, 고승 慧遠이 廬山에 東林精舍를 지어 놓고 용맹정진한다. 이 동림정사 아래로는 호계라 불리는 시내가 흐르고 있었다. 혜원은 스스로 찾아온 손님을 보낼 때는 이 호계까지 와서 작별하도록 정해 놓고 절대로 내를 건너가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학자요 시인인 陶淵明과 道士 陸修靜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눈 후 이들을 보내며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코 이 호계를 지나고 말았다. 문득 이 사실을 깨달은 세 사람은 마주 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이 고사를 소재로 하여 그린 「虎溪三笑圖」가 널리 알려져 있다.

46) 都漢基, 「武屹書齋」(『邑誌雜記』張14), “年前, 院宇毀撤之時, 並與此閣而毀之, 亦妖僧栢悅之稱, 有寺弊誣訴京司之致也, 不勝浩歎.”

한 사람은 裴尙龍(藤巖, 1574-1655)이었다. 그는 성주의 유생들에게 통문을 띄워 무휼정사를 증견하는 일을 힘없는 승려들에게만 맡길 수 없어 우리가 나서서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동참을 촉구하였다. 또한 朴震耆와 都鎭國 등 15인이 立巖甲會<sup>47)</sup>를 결성하여 이 지역의 승경을 감상하며 무휼의 문화를 새롭게 가꾸어 가고자 했다. 현재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입암 맞은편 언덕에는 ‘十五賢立巖甲會契遺蹟碑’가 세워져 있다.

18세기 후반의 鄭東璞(警軒, 1732-1792)이나 鄭煒(芝厓, 1740-1811) 시대에 오면서 정구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무휼문화는 다시 살아난다. 무휼정사가 새롭게 복원되고 「무휼구곡도」가 그려지며, 관련 차운시 역시 다양하게 창작된다. 일대 혁신이 일어난 것이다. 이후 무휼 문화가 쇠퇴 일로의 상황에 처해지자 19세기 중후반기에 李源祚와 李震相(寒洲, 1818-1886)이 등장하여 무휼 문화를 다시 일으킨다. 특히 이진상은 「무휼서당계」를 조직하여 “위로 先正께서 남기신 규약을 회복하고, 가운데로는 유학의 끊어진 분위기를 진작시키며, 아래로는 후학에게 모범을 보이교자”<sup>48)</sup> 했다. 이러한 노력은 20세기 후반까지 이어져 張珠錫 등 38인을 중심으로 淸樂契를 구성하여 무휼의 문화를 이어가고자 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무휼구곡의 문화적 특징은 다양하다. 무휼구곡은 새로운 구곡문화의 모태가 되기도 하고, 산중도서관의 역할을 하면서 영남의 독서문화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곡과 경이 어울리

47) 회원 15인은 朴翊, 李乾亨, 朴震耆, 李益銓, 李惟銓, 都鎭國, 柳慶昌, 鄭弘錫, 李建茂, 呂孝孟, 宋時綱, 宋世弼, 金懷直, 柳宗立, 黃沃이다.

48) 李震相, 「武屹書堂契案序」(『寒洲集』卷29), “上而復先正之遺規, 中而振斯文之絕響, 下而揭後學之模範.”



면서 특이한 ‘曲內曲’, ‘曲中景’의 문화적 확장을 보였다. 유불선이 화합하면서 경쟁하는 것과 계회를 통한 무흘구곡 문화의 계승도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었던 기반은 대학자 정구가 지니는 학문적 구심력과 함께 넓고 긴 무흘구곡의 지리적 여건 때문일 것이다. 정구와 그 문도들이 무흘구곡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꾸준히 확보하고자 했고, 아울러 넓은 범위에 걸쳐 구곡이 설정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생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V. 남은 문제들

본 논의는 성주 및 김천의 구곡문화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무흘구곡 가운데 捨印巖과 滿月潭, 그리고 臥龍巖의 위치를 정확히 비정하는 한편, 무흘구곡의 문화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획된 것이다. 이 지역의 구곡문화는 대가천 계류를 따라 무흘구곡 안으로 생성되고 변화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정구가 주희의 「무이도가」에 커다란 영향을 받아 무흘을 경영하며 주희의 구곡시에 차운하였다. 이후 후인들은 정구의 心意를 찾아 구곡을 설정하며 구곡문화를 정착시켜 나갔다. 쌍계구곡이나 포천구곡 등 새로운 구곡이 탄생되기도 했다. 여기서 훨씬 나아가 무흘구곡과 주변의 문화경관이 맞물리면서 변형된 형태의 구곡문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무흘구곡 가운데 사인암과 만월담은 오늘날까지 심각하게 왜곡된 채로 전해졌고, 와룡암도 정구가 명명한 바로 그 자리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30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던 무흘구곡 연구는 오류

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안내판 설치  
는 구곡문화를 왜곡하고 고착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본  
논의는 『한강집』에 전하는 무흘구곡과 관련된 다양한 언급들과 18  
세기에 그려진 김상진의 「무흘구곡도」, 그리고 수집한 사진이나 주  
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사인암, 만월담, 와룡암의 위치를 새롭게 비  
정했다. 특히 관란대 각석의 발굴은 이를 바로 잡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흘구곡은 내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포함하고 있었다. 몇 가지  
특징을 들면, 무흘구곡이 새로운 구곡문화의 모태가 되었던 점, 영  
남의 독서문화를 이끌었던 점, 곡과 경이 어울리면서 특이한 ‘曲內  
曲’, ‘曲中景’의 문화적 확장을 보였던 점, 유불선이 화합하면서 경  
쟁하였던 점, 계회를 통한 구곡 문화의 계승을 보였던 점 등이 그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은 정구라는 대학자가 구심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성쇠가 나타나지 않는 바 아니나 지역민들이  
自文化를 꾸준히 가꾸어 가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논의를 이상과 같이 정리할 수 있지만, 현재의 행정구역  
상 성주군과 김천시에 걸쳐 있는 무흘구곡은 더욱 깊이 조사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문화적으로도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하며 미래를  
위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힐링을 중요한 시  
대적 키워드로 삼으며, 자연 속에서 인간과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  
고자 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무흘구곡은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며  
지속적인 문화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무흘구곡  
이 정부가 추진하는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그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염

두에 두며 성주와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와 무흘구곡에 따른 몇 가지 남은 과제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본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의식을 더욱 예각화 하는 일이다. 이것은 본 논의가 성주 및 김천지역의 구곡 문화와 무흘구곡에 대한 서론이자 총론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흘구곡에는 구곡시에 차운한 것은 물론이고 여타의 개별 경관에 대한 작품이 수없이 많다. 본 논의에서는 이에 대한 일부 작품의 제목만 제시하였을 뿐,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지면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본 논의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후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이들 작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로써 무흘구곡과 쌍계구곡이 무엇이 같고 다르며, 포천구곡은 또한 구곡문화 가운데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둘째, 역사적 고증에 따른 각 곡의 정확한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무흘구곡의 보존 및 개발과 자연히 맞물린다. 특히 사인암과 만월담, 그리고 와룡암은 본고에서 새롭게 비정한 것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위치 변경은 물론이고 안내판을 정확하게 설치하여 그동안 있어왔던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역사문화에 대한 향유는 정확한 고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마침 정부의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무흘경관 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본 논의에서 밝힌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술적인 측면에서 『武屹誌』가 만들어져야 한다. 무흘구

곡은 성쇠가 거듭되기는 하였지만 오랜 세월 동안 문화 역량을 축적한 대표적인 곳이다. 曲內曲이 있으며 曲內景도 있다.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경만을 합하면 도합 58경이나 된다. 정관영의 청천정사를 중심으로 한 4경, 정래석의 숙야재를 중심으로 한 10경, 장복추의 묵방 자연정을 중심으로 한 10경, 여효사의 가운서당을 중심으로 한 8경, 대신벽암의 청암사를 중심으로 한 8경, 최린과 성섭의 무흘정사를 중심으로 한 8경과 10경 등이 모두 그것이다. 이들은 무흘구곡과 때로 맞물리고 때로 분리되면서 문화적 확장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무흘지』 안에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여 무흘에 관한 모든 자료가 수집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무흘구곡은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연구되고 또한 문화적 성장이 거듭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적 측면에서 무흘구곡의 중요한 부면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파괴된 사인암을 복원하거나 무흘정사 서운암의 도서관적 기능을 되살리는 일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복원과 함께 무흘구곡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무흘구곡은 인간과 자연, 문학과 사상이 공존하는 자리에 있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회통의 문화적 향유와 함께 시대성을 인식한 힐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흘구곡은 성주군과 김천시에 걸쳐 있으므로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문화 역량을 결합시키며 상생적 구도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로써 성주군과 김천시는 공동의 문화를 상생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근대와 과학의 압박 속에서 자연과 인간을 그리워하면서 산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곡문

화와 무흘구곡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 이 문화 속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의 성찰,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과 철학적 사유가 공존하고 있어 근대와 과학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이를 인식하면서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를 개발하고 무흘구곡을 더욱 연구하여야 한다. 본 논의에서 수행한 역사적 고증과 문화적 특징에 대한 구명도 그 최종 목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원전자료

- 金尙眞, 『武屹九曲圖』
- 都漢基, 『邑誌雜記』
- 裴尙龍, 『藤庵集』
- 成 涉, 『僑窩文稿』
- 李萬敷, 『息山集』
- 李源祚, 『凝窩集』
- 李震相, 『寒洲集』
- 張福樞, 『四未軒集』
- 鄭 述, 『寒岡集』
- 鄭觀永, 『五一謾筆』
- 鄭東璞, 『警軒遺稿』
- 鄭東璞, 『警軒遺稿』
- 趙錫喆, 『靜窩集』
- 崔學吉, 『懼齋集』
- 許 穆, 『眉叟記言』

2. 연구논저

- 金光淳, 「寒岡의 生涯와 文學」, 『한국의 철학』 13, 경북대 퇴계연구소, 1985. 7-61쪽.
-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경상북도·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1-434쪽.
- 문화재청, 『2006 전통명승 동천구곡 조사보고서』(연구책임자 김덕현), 문화재청, 2007. 1-193쪽.
- 李殷昌, 「韓國儒家 傳統園林의 研究 - 儒學者의 卜居와 九曲經營을 中心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4, 효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 1987. 1-114쪽.
- 鄭羽洛, 「寒岡 鄭述의 武屹精舍 건립과 著述活動」, 『남명학연구』 28,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9. 273-314쪽.
- 鄭羽洛, 「산중도서관 '무흘정사 장서각'의 장서 성격과 의미」, 『영남학』 2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1. 7-52쪽.
- 鄭羽洛, 「寒岡 鄭述의 武屹 경영과 武屹九曲 정착과정」, 『한국학논집』 4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2. 85-125쪽.
- 鄭羽洛, 「성주지역 道學의 착근과 江岸學派의 성장」, 『영남학』 21,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2. 45-78쪽.
- 崔杞秀,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景觀 構造의 解釋에 관한 研究」, 한양대 학교 박사논문, 1989. 1-253쪽.

Abstract

A Study on the Gugok Culture and Muheulgugok(武屹九曲)  
of Seongju and Gimcheon

- With a Criticism and Correction of Some Locations in Muheulgugok -

Jeong, Woo-Rak

Of Muheulgugok stretching over Seongju and Gimcheon, Sainam(捨印巖) and Manwoldam(滿月潭) have been transmitted with serious distortions till today. Waryongam(臥龍巖) does not stand at the place originally appointed by Hangang Jeong Gu. Those are the reasons behind the severe errors with the researches on Muheulgugok over the past 30 years. The wrong signs set up by the local governments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distortion and consolidation of Gugok culture.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m thoroughly and criticize and correct their locations anew.

Muheulgugok has diverse cultures inside, which is demonstrated by that Muheulgugok became the matrix of new Gugok culture, that it led the reading culture of Yeongnam, that the harmony between Gok and Gyeong led to the cultural expansion of unique "Goknaegok(曲內曲)" and "Goknaegyeong(曲內景)", that Confucianism, Buddhism, and Zen achieved harmony and competed against each other, and that the Gugok culture was put in succession through Gyehoi. Those cultural characteristics were possible because a great scholar named Hangang Jeong Gu

served as the centripetal force. They were also the results of efforts made by the local residents to refine their own culture persistently in spite of the ups and downs.

**Key Word**

Seongju, Gimcheon, Muheulgugok, Hangang Jeong Gu, Sainam(捨印巖), Manwoldam(滿月潭), Waryongam(臥龍巖), Goknaegok(曲內曲), Goknaegyeong(曲內景)

- 논문투고일 : 2013.11.12. 심사완료일 : 2014.2.13. 게재결정일 : 2014.2.14.